

#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현주소

- 원유수입 세계 4위, 정제능력 세계 6위, 석유소비 세계 7위로 한계단씩 하락 -

## 대한석유협회 기획관리팀

석유부문별 세계 순위 (2003)

(단위: 천B/D)

	원유수입	원유수출	제품수입	제품수출	석유소비	정제능력
1	미국 10,311	러시아 5,551	미국 2,528	사우디 1,641	미국 20,071	미국 16,894
2	일본 3,978	사우디 5,186	네덜란드 1,147	러시아 1,485	중국 5,982	러시아 5,512
3	독일 2,980	노르웨이 3,045	일본 1,114	네덜란드 1,475	일본 5,451	중국 5,487
4	한국 2,729	캐나다 2,347	독일 878	미국 1,097	독일 2,664	일본 4,683
5	프랑스 1,875	이란 2,047	싱가폴 833	싱가폴 963	러시아 2,503	인도 2,333
6	이태리 1,767	U.A.E 1,496	중국 693	한국 755	인도 2,426	한국 2,316
7	중국 1,484	영국 1,410	한국 667	베네수엘라 625	한국 2,303	독일 2,304
8	스페인 1,363	나이지리아 1,339	프랑스 589	캐나다 591	캐나다 2,149	이태리 2,292
9	영국 1,316	이라크 1,106	인도 511	쿠웨이트 563	프랑스 1,991	프랑스 1,967
10	네덜란드 1,187	쿠웨이트 1,089	이태리 507	U.A.E 512	이탈리아 1,927	캐나다 1,928
11	인도 1,089	리비아 1,043	영국 490	영국 486	멕시코 1,864	브라질 1,913
12	싱가포르 1,018	베네수엘라 956	홍콩 370	벨기에 447	브라질 1,817	사우디 1,911
13	캐나다 919	오만 917	멕시코 352	알제리 430	영국 1,666	영국 1,785
14	대만 822	알제리 884	벨기에 347	이태리 423	스페인 1,559	이란 1,474
15	벨기에 817	카타르 834	인도네시아 336	독일 390	사우디 1,437	멕시코 1,463
세계 총계	46,507	46,507	21,256	21,256	78,112	83,658

주) 1.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은 World Oil Trade(2004. 9월판) 참조

2. 원유생산, 석유소비, 정제능력은 BP통계(2004. 6월판) 참조

2003년 우리나라의 석유관련 지표를 보면 원유수입은 세계 4위, 정제능력은 세계 6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를 차지하여 2002년보다 각각 한계단씩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수출은 2002년과 같은 세계 6위를 유지했으며 제품수입은 2002년에 비해 한계단 올라선 세계 7위를 기록했다.

World Oil Trade, OGJ, BP통계 등 세계적인 석유통계자료를 취합한 결과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하루 230만8천배럴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유수입은 한국이 전년대비 27% 증가한 하루 272만9천배럴을 수입하였으나 298만배럴을 수입한 독일에 밀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석유정제능력의 경우 우리나라가 하루 231만6천배럴(BP통계) 수준으로 예전과 변함이 없으나 233만3천배럴의 정제능력을 확충한 인도에 밀려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석유제품수출은 하루 75만5천배럴로 6위를 유지하였으며 석유제품수입은 하루 66만7천배럴로 58만9천배럴을 수입한 프랑스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섰다. ☺